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경연 넘어 축제로

학술포럼·전야제·기획공연까지 전주 전역 물들이는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 개최

지난 9일 공모대회를 시작으로 힘찬 사위를 당긴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본격적인 국악의 성찬을 차려낸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일환으로 국악 부문 경연뿐만 아니라, 학술 포럼부터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기획 공연까지 전주 전역에서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대사습놀이 연계 학술 포럼이 열린다.

'공동체가 만든 무형문화유산 구축의 실천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전통예술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계승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전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포스터

행되는 본 경연에서는 판소리 명창부

와 농악부, 기악부, 무용부 등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예인 자리를 두고 진검승부를 펼친다. 특히 오는 6월 8일 MBC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종합 본선 대회에서는 올해의 장원이 최종 가려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국악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5대 기획 공연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야제' (5월 23일) △역대 장원 수상자들의 품격 있는 무대를 만나는 '장원자의 밤-水滸穿石(수적천석)' (5월 24일)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소박한 일상에 담긴 웃음과 애환을 되짚어 보는 '70년대 해학정극 展' (5월 29일) △국악의 무한한 변신을 보여줄 퓨전 국악 무대 '창작의 밤' (5월 30

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5일 펼쳐지는 '팔도 한량 한마당 잔치'는 판소리 비전공자인 동호인들이 주인공이 돼 신명을 나누는 자리로, 국악이 전문기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일상의 문화임을 증명하는 자리로 채워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대사습놀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 브랜드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했다"면서 "전주의 멋과 소리의 맛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전국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관련 공연의 상세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 (063-252-679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과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 발굴 박차

전주시, 청년희망단 정책 제안 완성도 제고 위해 소관부서 사전 검토 진행

전주시가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과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공식 활동에 돌입한 제10기 청년희망단이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희망단은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한 전주시 대표 청년참여기구로, 매월 분과회의 등 분과별 활동을 이어오며 최근 청년 정책 제안 초안을 완성한 후 현재 최종본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희망단의 정책 제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교육과 시정 현장 방문 교육을 추진했다. 또, 제안된 아이디어를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분과별로 멘토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18일부터는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정책 제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분과별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에는 청년희망단이 제안한 정책을 다른 청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청년의 날을 비롯한 다양한 시정 참여 활동을 추진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친화적 정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숙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과별 활동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추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AI·가상융합기술로 전북 산업 AX 모델 발굴 지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6월 2일까지 전북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참여기업 모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은 가상융합기술(XR)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전북 지역 산업의 AI 전환(AX)을 이끌 기획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북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는 도내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산업 AI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가상융합기술과 AI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AX 사업화 모델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진흥원은 전북의 산업 인프라와 기업 수요를 반영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총 800만 원으로, △공공·라이프 △로봇·제조혁신 △전북특화(데이터활용·문제해결) 등 4개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 공동 프로젝트 그룹 활동 지원 △지자체 및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옛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제작 시설·장비 인프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번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화 가능성과 산업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국비사업 및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가상융합산업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북형 AX

산업 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2일까지 전자우편(sky4377@jc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AI와 가상융합기술을 지역 산업 현장에 접목해 전북형 AX 모델을 발굴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실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포그니, 출산가정 위한 배냇저고리 세트 후원

송천3동 지사협, 포장 봉사

송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경희)는 출산가정을 응원하고 아이의 건강한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배냇저고리 214벌을 관내 출산 산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배냇저고리 세트는 (유)포그니(대표 이용준)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송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정성껏 포장해 의미를 더하고,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와 부모의 앞날을 응원

하는 마음을 담아 더욱 뜻깊다.

후원에 참여한 이용준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경희 위원장은 "출산과 육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산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돌보는 따뜻한 송천3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송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출산가정을 응원하고 아이의 건강한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배냇저고리 214벌을 관내 출산 산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여행은 혼자일 때 가장 선명해진다' 북토크

전주시 다가여행자도서관, 안시내 작가 초청 강연 열려

전주시 다가여행자도서관은 20일 안시내 작가를 초청해 '여행은 혼자일 때 가장 선명해진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여행 특화 도서관인 다가여행자도서관이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여행을 통해 개인의 삶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시내 작가는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여행이라는 일 △여행은 언제나 당신의 편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번 강연에서 다양한 대륙을 홀로 여행하며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나홀로 여행'의 가치를 전달했다.

안 작가는 아프리카와 인도, 발리 등 세계 오지를 여행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은 물론,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5895m) 정상을 등반한 독특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